

# 종근당, 노바티스에 심혈관치료제 기술수출 1.6조 '대박'

매출액비 12%이상 개발투자 '결실'  
'CKD-510' 기술수출 계약 체결  
韓 제외 전세계 독점적 권리 이전

종근당이 매년 매출액 대비 12%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꾸준히 투자해 개발한 혁신신약 후보물질 중 하나를 다국적사에 기술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종근당은 글로벌 제약기업 노바티스사와 신약 후보물질 'CKD-510'에 대한 13억50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노바티스는 종근당이 개발하는 'CKD-510'의 상품개발 및 상업화와 관련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종근당은 계약금 8000만 달러(약 1061억원)를 수령하고 향후 개발과 허가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12억2500만 달러(약 1조6241억원)와 매출에 따른 판매 로열티를 받는다.



종근당은 앞서 지난 202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에서 'CKD-510'의 전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종근당

종근당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 'CKD-510'은 저분자 화합물 질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억제제다. 종근당은 전임상 연구에서 심박세동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유럽과 미국

에서 진행한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한 것이다.

무엇보다 종근당은 'CKD-510'을 개발하기 위해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플랫폼 기술을 적용했다.

'CKD-510'은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억제제로는 최초로 비(非)이온채널차단제로써 심장의 리듬 조절과 심박수 조절 치료뿐만 아니라 질환의 근본 원인도 개선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심박세동은 심방의 규칙적인 수축이 소실되면서 불규칙하게 맥박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성심질환, 확장성심부전 등의 심장질환과 동반된다.

종근당에 따르면 현재 심박세동 치료제로는 이온채널차단제가 있지만 불충분한 약효와 동서맥, 심실부정맥 등 안전성과 관련해 효과적인 약물에 대한 미충족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종근당은 일찍이 효능 및 독성 측면에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선택적 저해제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신경, 암, 면역 등의 질환 치료를 목표로 신약 개발을 진행해 왔다.

향후에도 자체기술로 개발한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 플랫폼을 활용

해 다양한 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근당은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이중항체 항암 바이오 신약 'CKD-702',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CKD-508' 등의 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종근당은 신약개발의 범위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와 ADC 항암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업 종근당 제품개발본부장은 "노바티스가 오랜 신약개발 노하우와 상업화 역량을 바탕으로 CKD-510을 글로벌 신약으로 육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근당은 이번 계약을 동력으로 삼아 핵심 신약 후보물질들의 임상에 박차를 가해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근당은 빈혈치료제 바이오 시밀러 네스벨과 당뇨병 치료 신약 듀비에를 각각 일본과 미국에 기술수출한 경험도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 CJ제일제당, 배달 서비스로 K-푸드 확장 나선다

영국서 '비비고 투고' 론칭  
현지주요 배달 플랫폼 입점  
이달 팝업스토어 오픈 진행

CJ제일제당은 영국에서 배달 서비스 브랜드 '비비고 투고(bibigo to go)'를 론칭하며 K-푸드의 외연 확장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비비고 투고'는 현지 영국 배달 프랜차이즈 회사인 '팩워터브랜드(Peckwater Brands)'와 협업체 운영되며 메뉴는 영국에서 판매하는 비비고 제품을 기반으로 개발했다. 현지주요 배달 플랫폼인 우버이츠(Uber Eats)와 딜리버루(Deliveroo), 저스트잇(Just Eat)에 입점했다.

CJ제일제당은 정식 브랜드를 론칭하기 전에 배달업 전용 데모 브랜드를 만들어 약 6주 동안 시범 판매를 운영했으며,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칠리소스 핫장, 쌈장 등을 더한 교자만두, 식



영국 런던 쇼디치에 위치한 비비고 팝업에서 만두 매대를 둘러보는 소비자. /CJ제일제당

물성 만두, 치킨, 떡볶이, 잡채 등을 메뉴로 선보였다.

향후 6개월 단위로 메뉴를 변경할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소비자 리뷰 데이터는 메뉴 개발에 활용될 계획이다.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11월 한 달 동안 비비고 팝업스토어도 개최한다. 매장은 최근 런던의 중심지로 떠오

른 쇼디치(Shoreditch)에 열었다.

비비고 팝업스토어는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기회이자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비비고 투고' 서비스에서 판매하는 메뉴와 함께 아직 유통채널에 입점하지 않은 냉동김밥, 김치 스프링롤 등의 메뉴를 한정 판매

한다.

소비자 반응을 살핀 후 현지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메인스트림 채널의 신규 입점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유통사 바이어들이 비비고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해 5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인 영국 법인을 설립했으며, 2027년까지 유럽 식품사업 매출을 5000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태유럽 권역 내 주요 생산 거점으로는 독일의 마인프로스트 공장과 베트남 키즈나 공장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광동제약  
'비타500 자몽·라임' 2종

광동제약은 기존 비타500에 과일 본연의 맛과 향을 더한 '비타500 자몽·라임' 2종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광동제약에 따르면 '비타500 자몽'은 달콤쌉쌀한 맛이다. 레드자몽농축액을 첨가했기 때문이다. 또 '비타500 라임'에는 라임농축액을 첨가했다. 두 제품 모두 비타민C 850mg을 함유하고 칼로리는 30kcal다. 또한 광동제약은 이번 신제품을 병이 아닌 페트 타입으로 제작해 기존 비타500과 차별화했다. 170ml사이로 간편하게 휴대하며 음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이 '비타500'을 자몽과 라임 2종으로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광동제약

## 에이피알 메디큐브, 뷰티 인기제품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 다양한 혜택  
뷰티·디바이스 등 할인쿠폰 제공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에이피알은 오는 24일까지 메디큐브 자사몰에서 '메디큐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에이피알은 오는 9일까지 엠클럽 회원 전용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미리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한다.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을 우선으로 뷰티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11% 할인 쿠폰과 에

이지알뷰티디바이스 5만원 할인 쿠폰을 준비한다.

9일부터는 에이지알을 포함한 메디큐브 인기 제품 15개를 50% 할인가로 판매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주 다른 제품군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공개하는데 이에 제품 라인별 혜택과 멤버십 회원 대상 최대 2만5000원 할인 쿠폰팩이 포함된다.

오는 20부터 23일까지는 신제품이 출시된다. 에이피알은 신제품 앰플, 로션, 세럼, 패드 등을 최초 공개하고 50% 할인 특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 bhc, 박현종 회장 지주사 대표 해임

임금옥 bhc 대표이사 해임안 결의

박현종 대표이사(사진)가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스(이하 GGS)'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GGS는 bhc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GGS 이사회는 6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박현종 대표이사를 제외한 출석 이사 만장일치로 GGS 대표이사 변경을 결의했다. GGS 등기임원인 차영수 사내이사가 선임 GGS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GGS 이사회는 bhc 대표이사 변경 안도 발의해 임금옥 bhc 대표이사의



해임과 이훈종 사내 이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결의했다. bhc 대표이사 변경은 8일 bhc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GGS 이사회 관계자는 "악화되는 외부 경영환경에 맞서 GGS 및 자회사 bhc의 기업 명성 및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기업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 아모레퍼시픽 '퍼즈업' 굿즈 한정판

아모레퍼시픽이 엔씨소프트와 협업에 나선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공식 쇼핑몰 아모레몰에서 엔씨소프트의 퍼즐 게임 '퍼즈업' 캐릭터와 테니스를 주제로 꾸민 한정판 제품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스포츠 타올, 아크릴 키링, 댄프너 등 3종을 통해 '퍼즈업' 대표 캐릭터 헤르피를 소장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9일까지 아모레몰에서 스포츠 타올 2입 세트는 8만원 이상 구매 시 4900원에 추가로 구매할 수 있고, 아크릴 키링과 댄프너는 5만원 이상 구매 시 한 개를 선택해 증정받을 수 있다.

/이청하 기자